

학생들이 일궈가는 캠퍼스 '꿈의 도서관'

대학중앙도서관 대안 기능으로 출발... 10여개 대학서 설립 또는 추진중

대학의 '심장' 중앙도서관이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지 오래다. 비대해지고 타성에 젖은 중앙도서관의 행태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것이 바로 대학 생활도서관이다. 1990년 고려대에서 출발하여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홍익대 그리고 지난 3월 상지대와 건국대까지 현재 7개 대학에 생활도서관이 세워졌고, 서울대를 비롯해 건양대, 동국대(경주), 한국의국어대 등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활동중이다.

생활도서관은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타 학교 학생, 지역사회 주민에까지 이용자의 폭을 확대한 문호개방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문 연구의 장은 뒷전이고, 취업준비를 위한 독서실로 전락한 중앙도서관을 질타하는 측면도 있다. 더구나 서울대는 도서관 명칭으로 자 치도서관을 예정하고 있을 정도로 학생자치에 무게를 두고 있기도 하다.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한 편차

역사도 일천하거나와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 업무의 특성상 재학생의 힘만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한계가 있어 '도서관다운' 면모를 갖춘 곳은 몇개 안된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생활도서관을 세우는 이유도 각양각색이어서 이름만 같을 뿐 도서관의 '색깔'은 판이하다. 또한 각각의 생활도서관이 드러내는 편차는 생활도서관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스펙트럼이기도 하다.

홍익대 생활도서관(관장 전동희, 예술학

타성에 젖은 대학중앙도서관의

행태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생활도서관'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역사가 일천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대학재학생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다. 생활도서관이

곧 '꿈의 도서관'을 이루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

과 94학번)은 출발 선상에 있는 생활도서관의 양상을 띠고 있다. C동 인문관 8층에 공간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자료수집과 대출 등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 3월 25일 개관한 건국대 생활도서관(관장 류중기, 정의과 92학번)은 좋은 여건으로 시작한 경우다. 노천극장 스탠드 아래쪽의 창고로 쓰던 공간 20여평에 등지를 들었다. 시작부터 발기인 포함 60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책도 3천여권에 달한다.

선발주자인 고려대 생활도서관(관장 지성진, 정의과 94학번)은 1990년 5월17일 문을 열었다. 개관 여섯달 자축행사를 지난달 17일에 가졌다. 학생들의 손때묻은 책 1,

700여권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도서관 장서 4만권, 회원 6천명을 보유한 여전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도서관의 체계는 열람실, 자료실, 운영실의 기본적인 도서관 실무를 위한 기구이다 신세대 대학생의 취향에 맞춘 영상분과가 있다. 대학 생활도서관 운동의 선두주자답게 도서관보다는 운동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고려대의 특징이다.

"성과라고 말할 것은 달리 없다. 다만 6년동안 생활도서관을 지탱하고, 다른 대학으로 확산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 형식적인 분류체계보다는 내용 본위의 분류법을 채택하여 '운동' 항목을 대분류의 하나로 설정했다." 지성진 관장의 말이다.

이화여대 생활도서관(관장 송수희, 기독교학과 94학번)은 1994년 3월 29일 개관했다. 수서, 홍보, 교육의 세 단위에 20여명의 운영위원이 활동중이다. '열림과 교감의 움직임'을 실험장'을 목표로 한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아직은 실험준비 단계에 있다.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공교수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있고, 전공학생들의 참여도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도서관이 자주 자리를 옮겨 운영과 이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1997년 완공예정인 학생관에 학생생활공간의 하나로 70평 규모의 공간을 쓰기로 학교당국의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총장의 관할 아래로 들어갈 생각은 없다.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 있어도 생활도서관 본래의 취지를 훼손

하는 '타협'은 하지 않겠다." 학생자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송수희 관장의 나직하나 단호한 말이다.

'도서관' 본연의 기능도 충실

이화여대는 고려대보다는 완곡하지만 이 두학교의 생활도서관은 학교당국이나 대학 중앙도서관과의 의견교환 또는 연계를 몹시 꺼리는 데 비해, 세번째 주자인 인하대 생활도서관(관장 부성용, 경영학과 90학번)은 총학생회 산하 특별자치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조만간 정식 자치기구의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 그렇게 되면 총학생회 예산의 2%를 지원받고 있는 예산보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하대의 강점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초창기부터 복학생 중심으로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꾸렸고, 전문사서에게 자문해 도서관다위지도 록 노력한 것이 그 요인이다. 기본에 충실했기에 학생회관 6층에 자리한 핸드캡을 극복하고 5천권의 장서, 5백명의 회원, 하루 이용자 50명의 야무진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었다. 부정기적으로 도서관회보(〈삶과 도서관〉)를 발간하고, 최근에는 소장도서목록도 펴냈다. 특히 소장도서목록의 발간은 도서관 전산시스템의 소산이다. 다른 학교들이 일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비해, 인하대는 인하공전 도서관의 MAE 3.0프로그램에 수정을 가한 일종의 턴키(turnkey) 시스템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문시영 지음/200면/6,500원/철학박사학위논문 11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의 윤리학적 근본 문제를 행복의 추구로 상징하고 덕과 악을 행복론적 전제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행복의 문제를 철학적 반성을 통한 윤리학의 문제로 인식하게 해준다.

해석학과 비판적 사회 과학

이규슬 지음/208면/7,000원/철학박사학위논문 10

가다머의 해석학과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 과학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둘 사이의 해석학 논쟁을 다루고 있는 책. "심층 해석학" 또는 "비판적 해석학"이라는 새로운 해석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칸트 철학: 자연과 자유의 통일

김용정 지음/368면/12,000원

"자연과 자유의 통일"이라는 주제로 압축할 수 있는 칸트 철학의 여정(旅程)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칸트 철학 개론서. 칸트 철학의 모태가 되는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상을 기점으로 하여 폭넓게 칸트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L.K. 뒤프레 지음/권수경 옮김/208면/7,000원

모더니티의 문제를 신, 자연, 인간 사이의 전통적 통합의 와해에 근거한 초월성의 상실이라고 진단하는 지은이가 종교 언어, 상징, 신화 등을 주제로 하여 우리 가운데 실재하는 초월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인하대 생활도서관.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의 설계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시스템 분석가가 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볼 때 대학 생활도서관이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전산학이나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도서관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인하대 도서관은 좋은 사례로 꼽힌다.

아직 과도기 형태, 전문가 참여가 바람직

회원제도서관, 전문도서관, 민중도서관 등이 대학 생활도서관이 갖는 현재의 위상이다. 극복할 부분도 있고 강화할 요소도 있다. 열람은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대출은 7권 안팎의 책을 기증하거나 1만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회원제 도서관은 근대도서관의 맹이기에 출현한 것

인 만큼 생활도서관의 설립취지와는 상반된 성격이므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사회과학 전문도서관의 성격도 더 많은 소설책의 구비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바람에 어긋난다. 자료선택에서 가치론과 요구론의 긴장은 피할 수 없는 바 절묘한 점점 모색이 요청된다. 같은 맥락에서 민중도서관의 이념 추구도 유네스코의 '공공도서관선언'에 귀기울여야 한다. "직업, 신앙, 계급, 인종에 구애됨이 없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개방해야 한다."

개관 초기부터 생활도서관 운영에 깊이 간여했던 인하대 중앙도서관의 이우정 사서는 생활도서관이 '꿈의 도서관'이라는 데 그 의의를 부여한다. "사서가 해야 할 일을

학생들이 하고자 하니까 무조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생활도서관이 곧 자기 삶의 중심문제라는 것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바란다. 도서관 일은 집중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환부를 들추고 처방을 내렸던 김정근 교수(부산대 문헌정보학)는 대학 생활도서관을 관찰할 기회가 없어서 조심스럽지만, 지역사회와 대학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민과 학생 자치에 의한 작은 도서관운동은 대규모 도서관들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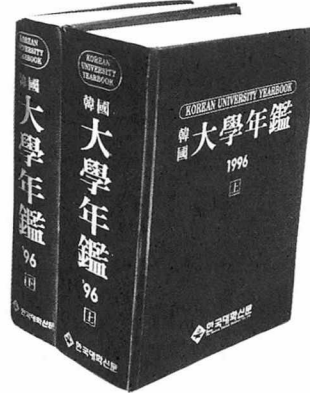
"지역주민, 노동자, 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큰 도서관들이 반성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미세화, 세련화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 신입생에서 명예교수까지 아우르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전문가의 자치에 의한 도서관 설립과 운영은 근대적인 도서관 제도가 확립된 이후, 유례가 없는 일로 생활도서관은 과도기적인 형태로 보는 것이 옳고, 더욱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일 기자

연감

대학 최신 정보 총망라 '96한국대학연감 발간



《'96한국대학연감》이 한국대학신문에서 나왔다. 1982년 처음 나온 이래, 여덟번째

인 96년판 《한국대학연감》은 대학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한데 모은 '대학백과사전'이다. 두권으로 엮은 이 연감의 상권은 327개 국내 대학의 정보와 외국대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 대학관계법령 및 각종 통계·자료, 2,982개의 연구문화단체 현황 등을 실었다. 별책인 하권은 대학교수 인명록으로 전국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만 7천여 명의 프로필을 수록했다.

자료·통계 편에서는 대학관계문헌 목록과 각종 통계 자료, 교육법을 비롯한 50여 개의 대학관련 법령모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한국대학신문/B5/3.056면/150,000원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출판정보

■ 구독료 안내 (주 1회 발행)

6개월 구독시 ▶ 12만원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 담 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271-0494

FAX. (02)271-0495

1. 전국 일간지 출판기자 100여 명과 격일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껏 너댓 종류의 신문스크랩만으로 자료조사를 끝냈다고요? 국내 최초의 종합출판정보자료집 「출판정보」는 전국 60여 개 일간지와 중요 주간지의 출판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합니다.

2. 21세기의 새로운 화폐는 정보입니다

출판인을 위한 유일한 종합정보지 「출판정보」는 기획, 독자시장, 마케팅 흐름, 출판계동향, 신간정보, 지역정보, 해외정보 등 출판에 꼭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매체」입니다.

3. 무료 서비스는 꼭 필요한 것만을 제공합니다

-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기사검색프로그램과 검색데이터 제공
- 자사의 중복기사를 따로 스크랩하여 팩스로 전송
- 보관용 바인더 제공과 신간정보 무료 게재

발간형식 : 주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